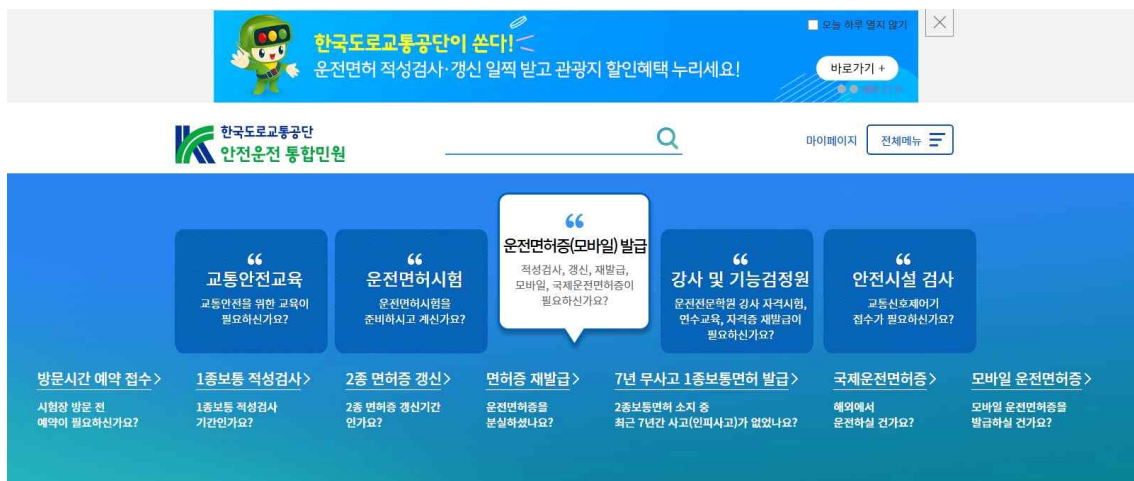


‘놓치면 장시간 대기, 운전면허 갱신 서두르세요’ 12월엔 줄선다! 운전면허 갱신, 지금이 적기!

- 운전면허 갱신 10월까지 65% 완료, 아직 168만 명 남아..대기 없는 온라인 갱신 권장
- 운전면허 갱신 대상자 10년 이내 올해 제일 많아, 12월 방문자만 70만 명 넘을 듯



온라인 적성검사가 가능한 ‘안전운전 통합민원(www.safedriving.or.kr)’ 누리집 <사진제공=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도로교통공단(이사장 김희중)은 올해가 두 달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을 완료하지 않은 대상자가 전체의 34%인 168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작년 11월에는 34만 명이, 12월에는 60만 명이 적성검사·갱신을 완료해 한 달새 77% 증가했다. 또 평균 대기인원이 2천 명, 대기시간은 4시간 이상이였다. 올해는 갱신 대상자가 최근 10년 이래 최다인 487만 명으로, 이 중 약 70만 명이 12월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운전면허를 제때 갱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특히 적성검사를 1년 이상 지연할 경우 면허가 취소돼 학과시험에 다시 응시해야 하는 불편이 생긴다. 또한 만료된 면허증은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없어 은행과 공공기관 이용에도 제약이 따른다.

이 같은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공단은 하루라도 빨리 운전면허를 갱신할 것을 권장했다.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www.safedriving.or.kr) 누리집을 이용하면 대기 없이 빠르고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고, 경찰서 또는 시험장을 수령지로 지정해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다. 단, 1종 대형·특수면허 소지자나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반드시 현장 방문이 필요하다.

공단은 연말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와 우편 통지를 확대하고, 박람회·공공기관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장소에서 ‘찾아가는 갱신 서비스’를 운영하는 등 갱신을 적극 권장 하고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아직 168만 명의 대상자가 남아 있어 연말에는 70만 명 이상이 몰릴 것으로 보여, 고객창구 인력 탄력운영과 대기현황 확인 서비스 제공 등으로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라며, “공단은 대기시간 10분 이내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적성검사·갱신 서비스를 단 하루라도 빨리 실시할 수 있기를 국민들께 적극 권장한다”라고 말했다.

날짜	대기인수	호출번호	대기시간	접수종
2024-12-30 17:23:22	56명	957	28분	접수중
2024-12-31 14:53:07	89명	535	53분	접수중
2024-12-30 17:23:22	1996명	2116	약 3시간 이상	접수중
2024-12-31 14:53:07	1579명	1385	약 3시간 이상	접수중

2024년 12월 30일, 31일 운전면허시험장 대기현황 <사진제공=한국도로교통공단>

담당 부서	운전면허본부 면허민원처	책임자	처 장	손영철 (052-216-1640)
		담당자	대 리	천지영 (063-216-1643)